

'팜투어 누비 GO!' 호응

남원시, 농외소득 1억 3000여만원 올려... 해외 관광객 선호

올해 2년째를 맞은 팜투어 남원누비 GO!가 농가에게는 농외소득을 올려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농촌체험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팜투어 남원누비GO!는 농민과 함께 농촌생활을 체험하며 농촌의 정을 느끼고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험·관광·숙박·판매가 어우러진 농촌여행 종합상품이다.

농외소득도 6,000여만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입소문을 타면서 팜투어 남원누비GO!를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 교육농

장, 우수민박 등 참여하는 농가를 확대하고 방문객들이 좀 더 농촌에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올해 1,637명의 관광객이 남원을 다녀갔다. 농외소득도 1억 3,000여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우선 내년에 남원관광의 랜드마크인 광한부원,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을 초월한 송고한 사람, 민족의 명산 지리산, 관소리 동편제, 천년사찰 실상사 등의 문화자원을 외국인들이 쉽게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촌관광산업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남원만의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타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팜투어 남원누비GO!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6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주거안정 '신호탄'

순창군, 행복주택 안전기원제

순창군이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이 지난 30일 안전기원제 행사로 주거안정의 신호탄을 알렸다.

지역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2016년에 선정됐다.

행복주택은 지난해 노인복지회관 철거공사를 마치고 본격 착공했다.

전용면적 30㎡ 4세대, 45㎡ 26세대의 임대주택으로 40억여원이 투입되며, 내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부지로부터 주변 광공사와 학교 등이 반경 500m 이내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인 면도 큰 장점이다. 이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의 기대가 높다.

임대료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군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고자 추진



지난 30일 열린 순창군 행복주택신축 안전기원제.

하는 만큼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출산을 저하로 정주민구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주택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오늘부터 기초생계급여 사전 신청 접수

임실군은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가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사전신청을 3일부터 받는다.

2018년 7월 18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

책'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거나 20세 이하의 1~3급 중증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아동의 보호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가족과 만 18세 이상의 공생생활가정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의 경우 만30세가 도래할 때까지 부양의무자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에이즈 예방·인식 개선 홍보

임실군은 '제31회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12.1)'을 맞아 12월 1일부터 7일간 에이즈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및 인식 개선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주민과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에이즈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노인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이즈는 식사,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염되지 않으며, 주로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오염된 주사가 공동사용,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하였다면 3개월 후 검사 받는 것을 권장한다.

검사를 통해 감염사실을 확인했다면 치료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배우자 등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임실봉황인재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 산실

임실 봉황인재 학당, 교육 효과 역할 '특독'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한 인구유출 문제와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월 개원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이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개원전부터 지역민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봉황인재학당은 학부모들의 호응 속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면적에 3층 규모로 9개 강의실, 세미나실, 상담실, 교무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두루 갖췄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각 강의실 마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조리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한 교육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실군합동택시 및 개인택시단위 위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택시 24대와 버스 2대를 이용해 학교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데려오고, 수업이 끝나면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시켜 준다.

특히 국내 유명대학교 수도권 출신 강사가 하루 3시간 국·영·수를 집중교육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에는 과학과 역사 과목을 더한 내신대비 특별반을 운영해 수업의 질을 한껏 끌어 올렸다.

이렇듯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알찬 학생지원 내용이 알려지며 올해 상반기 모집은 예상보다 훨씬 웃돈 지원자가 몰려 당초 150명 정원에서 신청된 174명의 중학생을 선발했으며, 지역을 아우르는 10개 지역 중학생들이 학당에 모여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

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교과 과목 수업 외에도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마인드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인성 프로그래밍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외부 전문 강사를 비롯해 현지 교장 및 교사가 참여한 고인 설명회와 공부비법 설명회 등은 교육열기가 높은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인기를 얻었다.

양성태 사무국장은 "교과 과목만 가르치는 일률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해 이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상황과 개인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황인재학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운영과정을 설명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 청정 농산물로 일일 일식을 제공하는 식단은 매 달 급식공개의 날을 운영해 재료구입부터 검수,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학부모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낙후된 교육 인프라로 인한 지역별 교육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학원과 연계해 '학원위탁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심민 군수는 "낙후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교육으로 다시 찾는 임실'을 만들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춘향애인 글판'

겨울 옷으로 갈아입다

올 한해동안 한마디 글로 시민과 함께 희망과 감성적 소통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 2018년 '춘향애인 글판'이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번 겨울편 춘향애인 글판 당선 문안은 "눈꽃 품은 지리산처럼 시리도록 아름다운 당신"으로 독창적이고, 계절과 지리적 배경을 잘 표현해 선정되었으며, 다소 딱딱한 이미지의 관공서를 따뜻함으로 덮어 주었다. 2019년 춘향애인 글판 공모는 1월 중순에 실시 예정이며, 공모대상은 연령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남원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가을까지 선정된 작품은 "▲(봄)가리마리 모여 봄이 되고 그리움이 모여 꽃이 되었네. ▲(여름)지리산 옥수(玉水) 흘러 요천을 적시니 아름다운 남원이로세, ▲(가을)오곡이 풍성한 남원 뜰 만인에 풍요로운 남원애 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순창군 팔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주민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추진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해, 제주도 가시리 권역과 하늘다리 권역을 둘러봤다. 해당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안 내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신옥수 농촌개발과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향후 팔덕면에 접목할 시설계획과 운영 등에 대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팔덕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작년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총 56억9천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면소재지 종합 정비를 통해 팔덕면의 고유한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활력 넘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